

[기획] >> 4면
총학생회의 탄생

[기획] >> 5면
대학가의 사이버성범죄

[사회] >> 8면
우울증, 청년사회에 드리워진 그림자

[인물] >> 12면
모바일식권 스타트업, 벤디스 조정호 대표

푸름, 학생사회에 가져올 변화



지난 13일,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결과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푸름' (안준현 정학생회장·전병수 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총 41.14%를 기록하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했다. 이에 따라 과거 비대위 체제와 뜨거웠던 선거 과정 및 앞으로의 기대까지 함께 알아봤다.

▶4면에서 계속

▶글·사진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아랍어과동문회, 스마트도서관 설립 위해 1억원 쾌척



지난 3일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이덕선 회의실에서 아랍어과 및 아랍어과동문회의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약정식이 진행됐다. 이번 약정식은 사회를 맡은 이은구 대외협력처장의 개식사로 시작돼 김인철 총장·홍

영표 동문회장의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철 총장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동문들의 고귀한 뜻과 취지를 잘 받들어 기능적·외형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도록 하겠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홍영표 동문회장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건립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회에서 도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번 약정식은 스마트도서관 건립을 위한 △우리학교 동문 △학과교수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행사는 김인철 총장의 약정표 전달로 마무리됐다.

조유진 기자 96yujin@hufs.ac.kr

글캠 정기총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10일, 글로벌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글로벌캠퍼스 청춘예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최한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2학기, 두 번의 정기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번 정기총회는 정족수 799명을 넘긴 1154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임태성 비대위장과 고경화 비대부위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정기총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제39대 총학생회장단 보궐선거 무산△학생자치기구 위원장 인준뿐만 아니라 비대위가 그동안 진행했던 행사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2018 상반기 정기총회 10대 교육환경개선안'을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학점특례' 사안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문 발표와 동시에 성적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기 총회는 '미투 운동'에 대한 학생회 지지 의사 표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를 위해 비대위는 교내 동아리 슬랩업과 외바가디 등을 초청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간식 행사·경품추첨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들을 함께 진행했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기초부터 고급까지!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18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과정소개]

FLC 외국어교육과정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회사원 그 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교육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와 더불어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 과정으로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 교육일정

[10주 주간/야간 정규과정 :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균형있는 통합교육]			
구분	주간	야간	
접수기간		2018. 06. 11(월)부터~ 2018. 08. 06(월)~12. 21(금)	
교육시간	09.30~16.20	18.40~21.30	
교육기간	1일 6시간/월~금/주5일	1일 3시간/월~금/주5일	
총 교육시수	총 600시간	총 300시간	
인원상한 (Level Test)		07. 21(토) 예정 (환수-외국어연수평가원)	
교육비	3,737,000원	1,821,000원	

[10주 야간회화과정 : 단기간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야간 11시	야간 11시	
접수기간	2018. 06. 25(월)부터~	2018. 09. 03(월)부터~	
교육기간	2018. 08. 20(월)~12. 12(금)	2018. 10. 20(월)~12. 21(금)	
교육시간	19.40~21.30	19.40~21.30	
총 교육시수	총 80시간	1일 2시간/월~목/금/주4일 총 80시간	
인원상한 (Level Test)	07. 21(토) 예정	10월 초(별도공지)	
교육비	일방면 : 594,000원 외대생(동문) : 482,000원	일방면 : 594,000원 외대생(동문) : 482,000원	

[10주 주말특별과정 : 단기간 실용 의사소통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주말(토)	주말(토)	
접수기간	2018. 06. 11(월)부터~	2018. 08. 06(월)~12. 21(금)	
교육기간	2018. 08. 25(토)~11. 03(토)	2018. 10. 20(월)~12. 21(금)	
교육시간	10.00~17.00/월(6시간/토/일/주말)	10.00~17.00/월(6시간/토/일/주말)	
총 교육시수	총 60시간		
인원상한 (Level Test)	08. 11(토) 예정	(환수-외국어연수평가원)	
교육비	671,000원		

※단, 위 교육비는 일반인 기준의 교육비이며,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별도 위탁교육생의 경우 교육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2. 교육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만어어 외
-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집언어는 다를 수 있으며 모집공고시 자세한 교육언어 참조
- 언어레벨별 적정인원 모집시 개설되며 모집인원 미달시에는 개설되지 않음

3. 교육대상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그 외 일반인 등 제한없음.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 STEP 2 : 접수확인
- 과정진행 절차 : 수강신청-교육비결제-레벨테스트-반편성완료-개강확정
- 수강신청 비로그인-과정 및 언어선택-원서작성-교육비 결제
-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교육비 결제 : 인터넷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완료 후 최종 접수여부 확인
- 무통장 입금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로 정확히 입금 후 입금확인

5. 반편성 시험(레벨 테스트)

- 시험내용 : 독해, 인터뷰
- 독해는 영어 30문항 내외, 기타 외국어 40~50문항
- 인터뷰는 1:1 면대면 인터뷰로 진행되며 약 5~10분 소요
- 단, 총 소요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시간 30분 소요
- 반편성 시험은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당락은 없음.
- 반편성 시험의 내용, 구성,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취소 및 환불안내

- 개강일 전까지 : 전액 단, 전영료 제외 환불 ※공통
- 20주(주간/야간) : 개강 후 6주까지 교육비-전영료×60% 환불
- 10주(야간) : 개강 후 2주까지 교육비-전영료×70% 환불
- 10주(주말) : 개강 후 3주까지 교육비-전영료×70% 환불

- 환불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 이후 일체 환불이 되지 않음
- 반편성시험(Level Test) 이후 환불시에는 전영료(30,000원)가 공제됨
- 환불시 홈페이지(개원관리-자료실) 등록취소신청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함께 제출
- 환불신청 후 실제 환불까지는 약 1~2주 정도 소요됨

7. 기타사항

-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편성 및 맞춤수업
- 언어별 특성 및 교육생 레벨에 따라 수업시간, 교과목은 다르게 편성됨
-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신청 외 인사혁신처 추천 및 기관, 기업체 위탁교육 신청의 경우 별도 문의
- 정규과정 외 기관 및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위탁과정 상시개설
- 기관 및 기업체 위탁과정의 경우 인원제한은 없으며 교육기간, 요일, 시간 등 자유설계 가능
- 과정 종료시 수료증 발급, 과정별 수료요건(출결 및 평가) 별도 문의

8. 문의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02-2173-2524-5 FAX.02-962-0575
http://fltc.hufs.ac.kr | www.facebook.com/hufsltc | fltc@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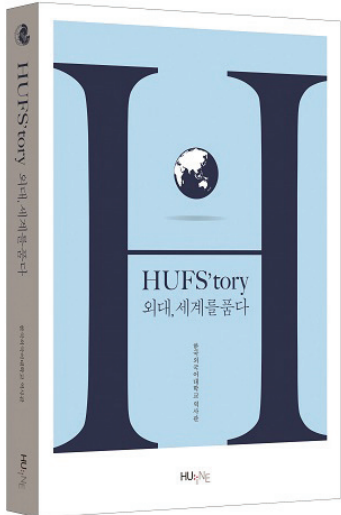
FLC PROGRAM

20주 주간/야간과정 : 2월, 8월 개강 | 10주 야간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10주 주말과정 : 2월, 8월 개강 | 방학특별과정(겨울/여름) : 1월, 7월 개강 | FLEX시험대 비과정(공무원유학시험대비) : 3월, 9월 개강 | 대학원외국어시험대비과정 : 3월, 9월 개강 | 통번역기초과정 : 3월, 9월 개강 | DELT시험준비과정 : 시험일 기준 2개월 전 개강 | TOMER(터키어)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기업체·기관 위탁과정 : 수시 개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EIGN LANGUAGE TRAINING AND TESTING CEN

개교 64주년 기념 역사집 발간



우리학교 역사서 'HUFStory' 외대, 세계를 품다'가 개교 64주년을 맞아 새롭게 발간됐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외대 40년' △'한국의국어대학교 50년사' △'한국의국어대학교 60년사' 등을 발간해 우리학교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지침을 마련해온 바 있다.

60년이 넘는 우리학교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현대사만큼이나 파란만장했지만, 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분투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과거에는 실용 외국어로 무장한 인재 양성을 통해 △외교△국제통상△국제지역학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글로벌캠퍼스를 개설해 △자연과학△공학△인문학으로 그 외연을 확장했다. 지금의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 제1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지향하는 '미래비전 2020'을 바탕으로 '학문적 통섭과 융합을 통한 우리학교만의 가치 있는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역사서에 비해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형태로 기획된 'HUFStory' 외대, 세계를 품는다'는 교내 부서 및 수많은 동문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김민철 총장은 발간사를 통해 "60여 년 역사를 반추하고 새로운 백년사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학교를 응원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HUFStory' 글로벌 봉사단' 성황리에 마무리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동계 HUFStory 글로벌 봉사단'이 2월 4일부터 11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의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달 29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미얀마 양곤의 '로템한국어학당'과 '쉐비다31초등학교'로 파견된 20명의 봉사단원들은 미얀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태권도, 탈춤, K-POP 등의 문화공연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뜻 깊은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추인혜(아시아·이란어 17)봉사단원은 "마음의 온기

를 느끼게 해줬던 이번 활동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오랫동안 여운이 기억 속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지 학교 관계자는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온 봉사단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글로벌네트워크 형성△글로벌리더십 배양을 위해 매해 세계 각지로 'HUFStory 글로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우리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제34회 국내초청세미나 개최



우리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는 지난달 30일 김기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겸 교수를 초청해 제34회 국내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라틴아메리카 개발 이론의 역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시대 중상주의정책△19세기 1차 산품 수출경제△20세기 수입대체산업화(ISI) 전략 등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약 600년 동안의 라틴아메리카 개발 전략을 역사적 시기에 따라 분석·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등장한 '지속 가능 발전' 개념과 관련된 사례를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정치경제적 함의를 평가하면서

향후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주문했다. 이후 △권기수 포르투갈어과 학과장△윤용국 스페인어학과 교수△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스페인어학과 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여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편 세미나에 대해 정경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장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한 탁월한 견해에 감사하다"며 "미래 학문적 접근 및 인재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연구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정 기자 94haj@husf.as.kr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Sandrine Roche 프랑스극작가 초청강연회 개최



우리학교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가 지난달 29일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Sandrine Roche를 초청해 '프랑스 공연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우리학교 대학인문역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프랑스의 주목받는 신예 극작가·연출가이자 배우인 Roche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현재 프랑스 공연문화 실정 및 환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공연예술에 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동시대 세계연극에 대한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한편 Roche는 연극 '아홉 소녀들'(원제: Neuf Petites Filles)을 제작했고 이 작품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동아예술극장에서 공연됐다. 아홉 소녀들은 2011년 제22회 '극작가들의 리옹에서의 하루' 협회에서 주최한 극작 경선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는 프랑스 국립연극센터의 창작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이하정 기자 94haj@husf.as.kr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우수) 교육대학원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인성·융복합 교원 교육의 최전선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018. 4. 30(월) 14:30 ~ 5. 4(금) 21:30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교육대학원 교학처	-기간 중 인터넷 24시간 작성 -우편 제출: 5. 4(금) 17:00까지 도착
면접 고사	2018. 5. 19(토)	-본교 대학원건물	-면접시간은 5. 18(금) 16:00 이후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입사뉴스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2018. 6. 7(목) 16:00 예정	교육대학원 홈페이지(gse.hufs.ac.kr) 공지	

▶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과정	모집 전공				모집인원
교육학 석사 (야간)	• 국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다문화교육 • 수학교육 • 교육경영과 리더십 • 독서논술교육	• 영어교육 • 일본어교육 • 역사교육 • 컴퓨터교육 • 상담심리 • 창의융합인재교육	• 어린이영어교육 • 중국어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명	

왜,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인가?

국내 최대 최고의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및 전공교수진
특화된 교원양성 과정 및 교원재교육 과정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발한 학생회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

입학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문의 02-2173-2421)
주소 :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요강 및 입사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석사과정]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네시아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CIS학과 유럽연합학과, 미국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 국제학과
[박사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특징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장학금(전원 지급, 등록금 20~30%)
-학과별 추천장학금(학기별 선발, 등록금전액)
-본교출신 조교 장학금 제도(학기별 선발)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수혜)
-외부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다수)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석사과정 비논문트랙 운영(일부학과 제외)

◆원서접수

구 분	2차모집
원서접수	5.17(목)~5.25(금)
면접일	6.9(토)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Website : http://gsias.hufs.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학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지난 11일 우리학교는 인도네시아 메단에 위치한 수마트라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엔 △김인철 총장△오종진 국제교류처장△고영훈 말레이·인도네시아어와 교수△이호덕 해외동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수마트라 대학에선 △Runtung, SH, M.Hum 총장△Ir. Rosmayati, M.S. 부총장△Muhammad Fidel Ganis Siregar 부총장△Ir. Bustami Syam 부총장△Esther Sorta Mauli

Nababan, M.Sc. 국제교류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협정 체결식은 수마트라 대학에서 진행됐다. 수마트라대학고는 인도네시아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메단에서 주요 거점 명문대학이라 불리며 우리학교는 수마트라대학교와 학생 교류는 물론 다양한 학술 분야 교류를 합의하며 체결식을 마무리했다.

박주원 기자 94swj04142@hufs.ac.kr

국제지역연구센터,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회의 열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학원△그리피스대 아시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국제회의가 호주 캔버라와 브리즈번에서 개최됐다. 호주 외무성과 호주-한국 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위기'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지역 질서의 모색'이란 주제로 △우리나라△호주△미국 등에서 온 상당수의 고위급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째 날 캔버라에서 열린 회의는 각 기관 대표들의 개회사에 이어 프란세스 애덤스 호주 외무차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본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한반도에서의 강대국 간 권력관계의 변화△위기 해법의 모색△

호주의 역할과 한-호주 협력 방향 등 4개의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튿날에는 우리학교 교수진과 미국 측 참가자들이 호주 국방성과 국방성을 방문해 내각 수상실 담당자들과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피스대학교 아시아연구원의 주관 아래 '한반도 위기 해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신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브리즈번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에서는 다양한 학술적·이론적 논의가 이뤄졌다. 모든 회의가 종료된 이후 주최 측은 그리피스 대학의 학생과 교수, 그리고 호주 언론 등을 위해 별도의 간단한 리셉션과 1시간가량의 공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 행사에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해 큰 성황을 이뤘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52대 서양어대학 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 열려



지난 5일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제52대 서양어대학 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권준환(서양어·프랑스어 15) 서양어대 정학생회장 후보자△박찬훈(서양어·노어 15) 서양어대 부학생회장 후보자△서양어대 학생 등이 참여했다. 공청회는 후보자 소견발표로 시작돼 참석자 서면 질의, 참석자 자유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0·1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제52대 서양어대학 학생회장단 투표는 1998명 중 927표를 얻어 약 46.3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 881표, 반대 30표, 무효 16표로 권준환 정학생회장 후보자와 박찬훈 부학생회장 후보자가 최종 당선됐다.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일본어대, 김덕술 동문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 본관 203호 이덕선 강의실에서 '김덕술 동문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김덕술 일본어대 동문회장의 기부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선 평소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두 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선발된 △융합일본지역전공 김혜완씨△일본언어문화전공 성주연씨는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 김덕술 회장으로 부터 장학서를 수여받았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선 김덕술 회장이 일본어대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김덕술 회장에게 우리학교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김덕술 회장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착실하게 나아가라"라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하정 기자 94haj@husf.as.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8. 4. 2(월) ~ 4. 6(금)	4. 28(토) 10:00	5. 10(목) 14:00	5. 14(월)~5. 18(금)
일반전형	2018. 5. 8(화) ~ 5. 14(월)	6. 2(토) 10:00	6. 14(목) 14:00	6. 18(월)~6. 22(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 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3년 만에 성사된 제52대 총학생회 선거

지난14일, 제 52대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으로 안중헌(서양어·독일어 16)·전병수(영어·영문 16)씨가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는 2015년 총학 ‘함께등대’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31조에 의하면 총학 선거 일정은 △선거 공고△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선거운동 기간△투표일△개표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회(이하 중운위)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선거운동△11일부터 12일까지 투표△12일 투표 마감 후 1시간 뒤 개표로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푸름’, 선거 현장 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전체 학생수의 10%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안중헌씨와 전병수씨가 총 8972명의 학생 중 약 16.28%인 1461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등록 이후 두 후보는 총 12일간 ‘변화의 바람, 당신에게 푸름’이란 오픈구호를 필두로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푸름’의 선거 유세는 △정문 앞△강의실△잔디광장△단과대 정기총회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진행됐다.

지난 6일, 브릭스를 화상강의실에선 제 52대 총학 재선거 후보자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두 후보자와 교내 언론사 및 일반 학생들이 참여했다. 공청회는 △후보자 소견발언△교내 언론사 질의응답△서면질의 및 자유질의△후보자 정리 발언 순으로 두 시간 가량 이어졌다. 두 후보자는 “지난 2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학생들의 여러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대표인 총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총학의 목표는 앞으로도 총학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제와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우선시 할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학사제도 협의회를 신설해 학교 측과 정기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 후보자 모두 대표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역량을 묻는 질문에 “자신 있다”는 말과 함께 학생들을 향해 “학생사회를 저버리지 말고 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의 실천을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1일, 총학 선거를 위한 투표가 학교 곳곳에서 진행됐다. 투표 첫날인 11일엔 8981명의 학생들 중 2291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25.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마감일인 12일 오후 1시 반, 누적투표수 2944명으로 투표율 32.78%를 달성하며 개표가 확정됐다. 투표율이 재적인원의 30%를 넘겨야 한다는 선거 기준을 충족시킨 것 이다. 이 날 오후 6시 반, 재적인원의 41.14%에 달하는 3695명의 참여 아래 투표가 마무리됐다.

개표 결과 전체 득표 중 찬성표가 89.39%(3303명), 반대표가 4.84%(179명)로 집계됐으며 5.76%(213명)이 무효표 처리됐다. 찬성득표에서 반대 득표를 감한 숫자인 3124표가 무효인 213표를 넘어서면서 지난 13일, 중운위가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푸름’(안중헌 정학생회장·전병수 부학생회장)의 당선을 공고했다.

◆기존의 비대위 체제, 총학의 필요성을 말하는 후보자

지난 2년간 우리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학생사회가 운영됐다. 지난해 11월, 총학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중운위 전원이 비대위 설립위원회로 구성됐다. 이후 비대위 설립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비대위원장·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했고,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년간의 비대위 체제 아래, 일각에선 이러한 대표자 결정 방식이 일반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중운위가 선출한 대표자들은 책임감·소명의식이 총학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아시아·인도어 16)씨는 “비대위 체제 아래선 일반 학생들이 대표자들의 자격 및 소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과 소통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그간의 비대위 체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리학교 50·51대 비대위는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명 반대 총장실 제거△학점 특혜 사유로 김인철 총장과 김인경(국제지역·국제스포츠레저 12) 학생 및 교수 약 40여 명 경찰 고발△총장선출권 개혁 주장△신년하례식에서 ‘김인철 총장 규탄 및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침묵시위 및 피케팅 진행△개강 행사 및 총장 규탄행사 ‘환상의 나라 외대 랜드’ 개최 등의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비대위는 교내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학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학생 및 학교의 무관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의 성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학교는 14년도 성적평가방식 논란 당시 성사된 정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정총은 해당 단위 학

생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개강 후 50일 이내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전체학생수의 10%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최선언이 이뤄진다. 정총에선 △매학기 예산·결산 보고△사업진행 보고△보고안건△논의안건 등 교내 사안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이뤄진다. 지난 해 2학기 정총의 경우 △입학금 폐지△총장선출권 개혁△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 및 대표자 3인 징계 철퇴△교내 안전 관리 체계△외국인 등록금 인상△송도

당선 확정 공고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푸름’ (정학생회장 안중헌, 부학생회장 전병수)의 당선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총 투표가능인원	8981명
총 투표수 (투표율)	3695표 (41.14%)
한 성	3303표 (89.39%)
반 대	179표 (4.84%)
무효	213표 (5.76%)
오차	2표 (0.05%)

한국의국어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캠퍼스부지 현황 등 다양한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이 필수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총은 성사 가능 인원인 813명에 한참 못 미치는 459명의 학생만이 참석하며 5.58%의 저조한 참석률로 막을 내렸다, 결국 정총 개최는 무산됐고 소회의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푸름’은 입후보 소감문에서 “총학

은 학생 주권의 상징이다”며 “지난 2년간 학생사회의 대표자가 부재한 비대위 체제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조직이 존재하지 못했다”고 비대위 체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공약을 기반으로 약속을 한 총학, 여러분의 투표로 직접 선출이 된 총학, 공약을 실천해나갈 집행부를 갖춘 총학과 비대위의 간극은 클 수 밖에 없다”며 “비대위는 학교 당국에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했고 ‘대표자부터 선출하고 오라’는 학교 측의 답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푸름’은 “△총장 선출권△학사제도 문제△인권 문제△자치 공간 개선의 문제△학내 시설 문제△도서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총학의 목소리로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총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감문을 마무리했다

◆‘푸름’이 내세운 공약

‘푸름’의 핵심 공약은 크게 △정책 분야△인권 분야△자치 분야△소통 분야△문화 분야로 나뉘었다. <아래 표 참조>

◆총학 당선에 따른 관심과 기대

그간의 비대위 체제가 막을 내리고 소통의 장이 새롭게 열렸다. 2년간 총학의 부재 속에서 서효상(중국·중국 16)씨는 “입학 후 선거를 통한 학생 대표 기구가 마련 될것을 처음 봤다”며 “앞으로 총학이 학생 권리를 실현할 창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49대 이후 52대 총학이다. 많은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권리를 실현했고 이를 통해 52대 총학은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제는 ‘푸름’이 총학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 할 때이다. 안중헌 학생회장은 “공약이 많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해결 돼야할 학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제도적인 체제 정비와 함께 지속가능한 총학으로서 학생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정책 분야

-학사제도개선 이전에 심의할 수 있는 학사제도협의회를 신설
-성적입력기간에 성적입력 의무화, 세부점수 입력 의무화, 투명한 강의평가 공개 및 성적알림시스템 도입
-어학강의 절대평가 재수강 제한 철폐(9학기 이상일 경우)
-군 복무 중 대학 원경강좌 학점인정제도 도입 촉구
-총학생회 차원의 일괄적인 예비군 공결 인정 공문 발송 및 예비군 일정 공유
-고시반 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컨트를 타워 구축 요구
-교양필수과목 중립 및 설문조사에 기반 한 강의 신설 요구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특별위원회 발족
-코어사업으로 인해 교과목 전면개편 이후 실태 조사 및 사후 대비책 마련 요구
-수요 충족 못시키는 인기 전공수업은 소수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개설 요구

인권 분야

-인권침해, 성폭력사건은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과 반성폭력 내규를 신설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
-진상조사, 징계위원회 학칙 개선을 통해 학생회가 성폭력사건 피해자 대변, 보호
-성평등센터와 학생상담센터 인력부족문제 지원확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
-인권연대국 신설해 인권보장사업 집행(인권주간, 학내 화장실 플래카메라 전수조사 및 보고서 공개, 남학생 휴게실 도입 추진, 친환경 여성용품 공동 구매 등)
-교내 소수자 권리보호 정책 추진(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 총학 주관 행사 채식주의자 선택권 보장,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회의 운영, 강의평가에 혐오·차별 발언 관련 설문 추가 등)
-생리공결제의 간편한 사용을 위한 전산화 도입

자치 분야

-교수·학생·교직원 모두가 참여가능 한 민주적 총장선출 제도를 위한 협의체 마련
-도서관 리모델링 촉구 및 대안 공간 마련
-이사회에 법정전입금 인상 및 책임감 있는 학교 운영 요구
-학내 구성원은 사설(사이버판 대강당, 오바마 홀, 국제회의실) 이용료 전면 무료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안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민주적인 회의체 운영 촉구
-교수·교직원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내 주차장 할인요금 적용 요구
-자치 공간 24시간 개방 및 냉난방 자율 사용 환경 마련

소통 분야

-총학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총학 공지게시 및 청원제도 운영
-페이스북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총학 소통채널 확대
-총학생회 사업을 확인 가능한 총학생회 게시판 숫자 확대

문화 분야

-변화를 이끌어내는 학생총회(학생총회 안건에 대한 친절한 설명 및 학생총회 전후 콘텐츠 확대, 잔디광장에서 참여적인 학생총회 진행 등)
-학생들의 수요 반영을 통한 콘텐츠가 강화된 축제 진행
-자치권, 인권, 정치 등의 의제를 담은 월별 문화행사 진행
-기획부터 준비까지 직접 준비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 재개

날로 기승하는 사이버 성범죄

최근 동국대에서 ‘단독방 성희롱 사건’의 가해 학생이 복학해 피해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가해 학생들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하 단독방)에서 같은 학과 학생을 비롯한 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대학가는 사이버 성범죄와 미흡한 후속 조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독방의 특성 상 증

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또한 명확하지 않아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단독방 사건과 더불어 사진 합성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신종 범죄 또한 등장하고 있어 대학가에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성범죄의 현황과 처벌 방안 등을 알아보자.

◆범인 잡기 어렵고 사진 삭제도 녹록치 않아… 사이버 성범죄의 정의와 문제 현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촬영물을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를 미디어,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또한 사이버성폭력으로 정의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율림과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가 제작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행위별 유형에 따라 △촬영 △유포/재유포△유포협박 △유포/소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 분류된다. 그중 대학가에서 논란이 됐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는 유포/재유포 항목에, 단독방 성희롱 사건은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최근 사이버 성범죄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텀블러 등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는 지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합성을 해주는 SNS 계정에 가해자가 합성을 의뢰하면 해당 계정 주인이 음란 합성 사진을 제작하는 형태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 알기 어렵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빠른 시일 내 삭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합성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기 시작하면 떠도는 사진을 일일이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란물 합성 범죄뿐만 아니라 단독방 성희롱 범죄의 경우에도 방을 삭제하면 가해자들이 나뉘던 대화가 유실돼 증거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의존해 사건이 접수되다 보니 주동자 색출 및 사건 예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지인 사진 이용해 음란물 제작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는 최근 SNS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성범죄다. 지난해 6월 경북대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 의하면 제보자는 “가해자가 친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성인배우 나체사진과 합성해 특정 사이트에 유포했다”며 “친구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 사진을 소장하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인터넷을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양대학교 재학생 B씨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SNS상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모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사건일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B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한 학생이 습득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습득자는 B씨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음란 합성 사진을 목격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전했다. 이후 피해자는 습득자와 만나 B씨의 휴대전화 속에서 지인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합성 의뢰 메시지를 발견했다. 합성 의뢰 메시지에 B씨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밝혀진 피해자는 총 16명에 이르렀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B씨에 대해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이후 이어진 재심신청 기간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퇴학 처리됐다.

◆피해자 “심각한 모욕감 느껴”… 연이어 터진 단독방 성희롱 사건

앞서 대학가는 단독방 성희롱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2015년 고려대에서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8명이 주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단독방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단독방에서 △여성 성희롱 및 성적대상화 △성폭행 모의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한 사진 게시 △여성혐오적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와 아우토반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그해 7월 서울대 인문대 아우토반(독문과)의 남학생 전체로 이뤄진 단독방에서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서울대 인문대학 카톡방 성폭력 고발’ 대자보를 공개했다. 학소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 8명은 2015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동기 여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 가해자들이 단독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은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 △여성 몰상화 △기타 여성혐오적 발언 등으로 그 수위가 무척 높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영여대학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한국외대 영여대학 성희롱 진상조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게시되며 공론화됐다. 진조위에 제보된 성희롱 사건들의 총 혐의자는 37인으로 이중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자는 12인이다. 이들은 △성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사건5, “농교가면 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의 성적 대상화 발언(사건9,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뛰는 걸 보라”)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사건10, “피해 학생이 내 밑에 깔려 있다”) 등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4월 25일 성희롱 조사 위원회를 발족했으나 관련자 대부분이 군 복무 중으로 즉각적인 면담이 어려웠다.

◆보완·개정 요구… 사이버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고 있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등 사진 합성 기술과 연관된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관련 현행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음란 사진 제작에 대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해자가 사진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음화제조’ 정도의 혐의만 적용된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파(활동가명) 한사성 사무국장은 “음란물 사진 합성도 사이버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성희롱은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고용상)불이익’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한편 특정한 업무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생 사이 단독방 내 언어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최민선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의 저하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성의 인정을 중요한 지표로 간주한다. 최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단독방에서 피해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무기정화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 A씨에 대해 “남학생들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또한 “A씨 등 가해 남학생들이 채팅방에서 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파 가능성 등을 볼 때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학교와 학생들 자정 노력 이어져… 사이버 성범죄 처벌 어떻게 보완하고 있나

지난 2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

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민 의원은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5월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가 됐던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등의 항목을 배제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줬다면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됐던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의 성적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이 의원은 “성희롱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법에서는 성희롱을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밝히며 “최근 법원에서 성희롱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 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처벌 분야의 보완·개정과 함께 우리학교 또한 자체적인 학교·학생 차원의 대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총장 직속기구로 성평등센터를 신설했다. 우리학교 관계자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학교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해 부서를 독립시켰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제52대 총학으로 당선된 선거운동본부 ‘푸름’ 또한 선거전 배포한 정책 자료집 인권 분야에서 2. 성폭력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학칙 개정, 3. 성평등센터·학생상담센터 지원 확대 및 모니터링 등의 정책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 우익계 헌법개정안의 사상적 특징과 함의



노병호 교수
미네르바 교양대학 강사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하 전후) 정치사에서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국헌법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존재했다. 아베 신조가 주장하는 '전후 레짐으로 부터의 탈각*' 도 헌법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1955년 자민당 창당 시의 정당 공약 '현행 헌법의 자주적 개정'이라는 문구에서 2010년 자민당의 '기본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자주헌법'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헌법 개정의 의지와 열망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해결의 최종 목적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우익계로, 헌법개정안을 내고 있는 단체 및 조직이 우익적 입장을 취하는 그룹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립되는 헌법 개정 반대파는 제9조 1, 2항을 포함한 현행 헌법의 평화적인 내용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형적으로 △1954년 헌법옹호국민연합△1958년 헌법문제연구회△1965 헌법개악저지각계연락회의△2004 9조의 모임△2014년 '헌법 제9조에 노벨평화상을' 단체는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개악(改悪)'이라 비판하고 현행 헌법의 평화사상을 일본의 전통으로 확립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명확한 헌법 개정안을 갖고 있는 우익계 주된 정당 및 단체로는 △자민당△세계평화연구소△일본청년회의소△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마쓰시타정경속(松下政経塾) 제34기생△산케이신문△요미우리신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의 헌법 개정안의 공통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헌법 전문에 '화(和)' 혹은 '도의(道義) 국가' 등을 삽입해 일본적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천황의 지위를 '상징'에서 '원수'로 격상시키고 있는 점.

셋째,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의 확대 및 강화 즉 '군대'의 보유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넷째, △공(公)△공의(公義)△공익(公益)△공공생활(公共生活)△공공질서△공공봉사 등의 조항을 다수 삽입했다는 점. 즉 사회 혹은 국가를 앞세워 국민의 권리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

다섯째, 긴급사태 혹은 비상사태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

여섯째, 헌법 개정절차를 용이하게 한 점.

헌법이 개정된다면 장래 일본의 헌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을 통해 상기의 내용의 일단을 확인해보자. 먼저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은 전문에 '일본국민은 국가와 향토를 자부심과 기개를 갖고 스스로 수호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화(和)를 존중하고, 가족과 사회 전체가 서로 도와 국가를 형성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이 헌법 초안의 전문은 현행 헌법에 전문에 비해 그 분량을 2분의 1 정도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국민에 의한 국가'가 아닌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국민△가족△사회△공동체 특히 '국가' 자체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의 특징은 제9조에서도 나타난다. 현행 헌법 제9조 1항과 2항에서는 '전쟁'과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개정초안에서는 이를 새로 제시한다. 새로이 마련된 헌법 제9조의 1, 2, 3항의 특징은 현행 헌법 제9조 1, 2항의 정신인 '무력 사용 영구 포기', '전력과 교전권의 부인'을 삭제하고 △자위권 발동의 명확화△국방군 보유 천명△국방군의 활동 범위 확대△'공(公)'을 위한 국방군의 활동 인정을 기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인한 활동도 용인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군'이라는 명칭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대로 '자위대'로 하는 대신, 이를 제9조 2항에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군대'의 지위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일본에서의 징병제의 부활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9조의 3에 규정된 '영토, 영해, 영공 보전' 내용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익계 헌법개정안의 특징은 대부분 '긴급사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초안 제98조 및 99조에 각각 4항 즉 총 8개의 항에 걸쳐 긴급사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즉 제99조 3항에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존중'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3장 △12조△13조△21조 2항△29조에 '공익 및 공의 질서'라는 사실상 국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국민의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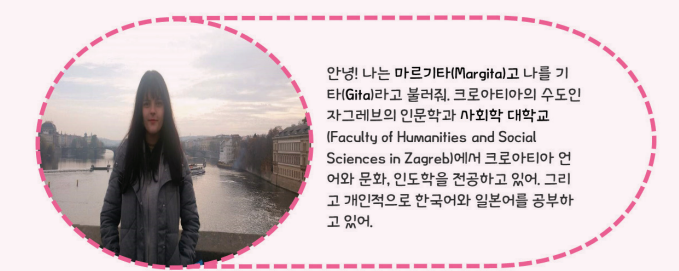
이러한 퇴행적인 헌법을 '전후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의 헌법으로 개정하려는 일본의 우익계 조직 및 단체의 의지는 지속적이고 강렬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의 강력한 추진 배경이었던 북한을 둘러싼 위기상황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지지를 저하△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라는 의회 내의 역학관계△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 국민들의 저항△지난해 NHK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의 행방 등은 헌법 개정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의 시도는 앞으로도 많은 허들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2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각각 284석과 29석으로 2/3석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고 각국의 대립과 갈등은 악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북한△일본△미국△중국△러시아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적 가치는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를 배경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 시도가 좀 더 구체화돼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된 일본이 탄생한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일본과 어떻게 대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크로아티아, 아름다운 광경 뿐만 아니라 파티도!

우리학교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라는 이름에 맞게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한다. 몇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 등을 통해 크로아티아가 새롭게 떠올랐다. 친구의 소개로 크로아티아인과 X톡으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크로아티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관광으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인이 말하는 크로아티아는 어떤 나라일까?



안녕! 나는 마르기타(Margita)고 나를 기타(Gita)라고 불러줘.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의 인문학과 사회학 대학교 (Facul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Zagreb)에서 크로아티아 언어와 문화, 인도학을 전공하고 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

크로아티아는 동남부 유럽에 위치한 반도 국가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면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어. 크로아티아도 한국과 같이 다도해 국가인데 지중해의 일부인 아드리아해 연안에 약 1,000개의 섬을 갖고 있어. 나는 새 같은 모양의 국토를 갖고 있어 위도에 따른 다양한 생태 지역을 볼 수 있어.

크로아티아를 말하자면 관광이 제일 유명하네. 유명한 섬들은 우글란(Ugljan), 파그(Pag), 랍(Rab), 비스(Vis), 흐바르(Hvar), 크르크(Krk), 볼(Bol)이야. 이 중에서 세계 10대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흐바르(Hvar)섬이 내가 추천하는 곳이야. 흐바르섬은 크로아티아의 4개 지역 중 달마티아에 있는 섬으로 이 지역 섬 중 여왕으로 여겨져. 내륙과 떨어져 있는 섬 특성상 문명의 영향을 덜 받아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아드리아해의 맛인 와인과 올리브를 맛볼 수 있는 행운도 있어. 그리고 흐바르 타운에도 어느 유럽의 섬들처럼 훌륭한 밤을 즐길 수 있지!

스페인에 이비자섬이 있다면, 크로아티아에는 파그(Pag)섬이 있어! 크로아티아가 아름다운 광경으로 유명하지만, 파티가 유명한 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섬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명한 해변에서 매일 밤 파티를 즐길 수 있어. 내륙에서 다리만 건너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 스페인의 이비자섬처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파티를 즐길 수 있어. 노발 자리조트나 파그 리조트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는 게 정석이야. 그리고 벨베데레 그라디츠크를 가보면 섬의 아름다운 전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자그레브, 자다르, 스플리트, 두브로니크 도시를 제외하고 포레치(Poreč), 스톤(Šton), 모토분(Motovun), 파진(Pazin), 보디체(Bodice)를 추천해. 그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포레치(Poreč)야! 이 도시는 크로아티아의 서쪽 해안가에 있어 항구로 유명해.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는 바실리카 대성전(Euphrasian Basilica)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고 비잔틴 예술의 대표작으로 여겨져. 고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좋은 기회야. 그리고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즐기는 페스티벌을 볼 수 있어!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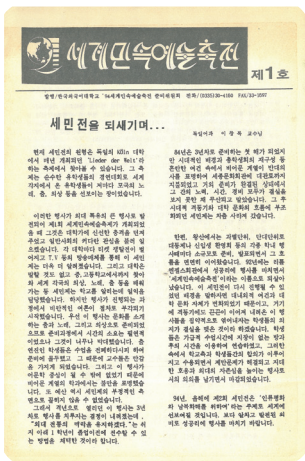
1971년 4월 23일, 세계 문화 한마당, 세계민속 예술제전을 시작하다.



▲제1회 세계민속예술제전(1971)



▲세계민속문화축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2008)



세계민속예술축전 소식지 제1호(1984)▶

전통의상을 입은 남녀가 추는 군무인 민속춤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민족문화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민속 예술이 장벽을 허물고 한자리에 모여 공연과 대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행사는 지구촌의 평화를 증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학교는 일찍이 이러한 세계 각국 민속예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1971년부터 '세계민속예술제전(이하 세민전)'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그 첫 시작은 4월 23일, 진명여고 강당인 삼일당에서였다. 세민전은 제1회 행사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근현대 공연예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민전은 초창기부터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명여고 강당(1971)△이화여자대학교 강당(1973)△세종문화회관 대강당(1979)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됐다.

1970년대 세민전은 대학 문화를 선도했다. 세민전 관람권을 얻으려 우리학교 학생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당시 유행하던 대중문화와 색깔을 달랐던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세계문화에 대한 동경심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세민전은 1979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공연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특

히 1981년 11월에 개최된 제7회 세민전은 19개 학교 900여 명이 참여한 대형 행사였다. 7차례 공연에 2만 5천여 명이 관람했다. 18개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은 이 행사는 KBS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세민전은 2000년대에 들어 '세계민속문화축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캠퍼스 울타리를 벗어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16년 9월 25일에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M-stage에서 제26회 행사가 개최됐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들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 세계민속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세계민속문화축전은 우리학교 축제에서 우리나라 대표 축제,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 해 지구촌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연을 통해 △우리학교 동문△주한 외국인△각국대사 및 명사△시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며 쉽게 접하기 힘든 세계 문화의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민속문화축전은 공연 준비위원회와 퍼포먼스 팀 모두 우리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순수 대학생 공연이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학교와 세계 문화에 애정을 가진 많은 구성원들에게 세계 문화를 알리고, 우리학교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도를 아십니까, 어디까지 따라올거야?”

우리나라 헌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사이비종교들이 곳곳에서 무분별한 포교활동을 펼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교의 자유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선 사이비종교의 포교활동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내기를 노린 포교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 과연 사이비종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포교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사이비종교 너 뭐야?

교회행사전에 따르면 사이비종교는 ‘거짓’, ‘가짜’란 뜻이다.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인 △교조△교리△신도를 구성하지 못하고 비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이다. 그 중 우리가 접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이비종교는 △신천지△여호와의 증인△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대순진리회 등이 있다.

신천지는 이만희 회화장을 믿어서 구원된다고 가르치며 이 회장을 신격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처음엔 설문·심리조사 등을 핑계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탐색한 후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시작한다. 주로 위장포교의 방식을 띄고 있으며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상담이라는 명목 아래 재연락을 취한다. 자신의 실제 소속을 숨기고, 개인적인 친분을 먼저 쌓아 '신뢰'를 형성한 후 교리를 전파하고 포섭한다. 사적으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개인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어렵다.

여호와와 증인은 기성교회를 마귀의 무리로 규정짓고 하느님이 △성부△성자△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유일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방문교교의 형태로 ‘할아버지 때문에 잠시 말쑥 좀 나눌 수 있을까요?’나 ‘화장실이 급하니 잠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등의 상황을 연출하며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는 몰몬경과 성경을 같은 위치에 놓는다. 주로 외국인 신도가 짝을 지어 다니며 영어교육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포교한다. 이들은 정장을 갖추 입고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가 적힌 명찰을 패용한다.

대순진리회는 창시자인 박한경을 신격화한다. 가장 익숙한 형태의 길거리 포교방식을 취하는데 “얼굴이 복이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등의 대화로 접근을 시도한다. 또한 신도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며 상당한 양의 돈을 걷는 것이 특징이다.

종교방송 CBS에 따르면 “사이비종교는 들어가도 문제지만 탈출해서 사회에 나오게 됐을 때도 적응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이비종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신천지 탈퇴자 A씨는 “현재 겉모습은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대인기피증도 생겼다”며 “신천지 내에서 내부방송만 듣다보니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참하나님은 신천지 안에만 계신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2002년 2월 14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도 대순진리회에 수천만 원의 돈을 바친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 대학가에도 침투한 그들

그렇다면 대학가에서 사이버종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사이버종교 탈퇴자 B씨는 “대학생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직업이 있는 사람보다 일 시키기가 쉬워 포교대상으로 선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CBS 방송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중 약 30%가 대학생으로 이뤄졌을 만큼 사이버 종교가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2004년, 전남대의 동아리연합회가 신천지 신



선교의 자유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선
사이비종교의 포교활동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기승을 부리는
현재 대학가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측에서도
교내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할 포교활동을
제재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에게 장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전남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내가 신천지의 신도이다”며 “수년간에 걸쳐 신천지가 동아리연합회를 장악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2014년 공주대에서도 신천지에 몸담았던 학생 B씨가 “신천지 신도 학생이 타구나 바둑처럼 종교 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동아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포교활동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2016년 연세대 원주 캠퍼스 또한 한 체육동아리에 신천지 신도 학생 여러 명이 가입해 포교활동을 펼쳤고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복지처는 이에 제재를 가하며 해당 동아리를 폐쇄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새 학기만 되면 각 대학교에서 사이버종교의 포교활동이 기승을 부린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신입생들은 포교활동의 목표가 되기 쉽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이하 학복협)에 따르면 “점점 포교방식이 진화해 학생이 쉽게 빠질 수 있다”며 포교활동의 두 가지 형태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실제 소속을 숨겨 개인적인 관계를 쌓고 신뢰가 생기면 단체로 포교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봉사 등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해외자원봉사나 영어체험바람회 등 이 시대 청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포교활동을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학교 또한 타 대학과 상황이 비슷하다. 우리학교 학생 H씨는 “신입생 때 학생 주관 하에 새내기 강연을 들으며 주치자와 친해졌다”며 “사적으로 만나니 같이 성경공부를 하자고 해 도망갔다”고 전했다. 이어 H씨는 “학기 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신입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학교차원에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학교 커뮤니티사이트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글에서도 익명의 제보자는 “자꾸 모르는 사람이 붙잡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이비종교의 포교활동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내비쳤다.

◆ 어떻게 파악하죠?

학복합은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 연합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학생은 교외에서 행해지는 성경공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측에서는 사이비종교를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캠퍼스의 각 선교주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확실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사회·미디어 13)씨는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 숲의 게시글을 보면 포교활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듣는 학생도 있다”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포교의 수법과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이버 종교의 교내 포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2018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18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8.4.23.(월) ~ 5.4.(금)	2018.6.4.(월) ~ 6.15.(금)
고사장 발표	5.9.(수) 15:00	6.20.(수) 15:00
면접전형	5.12.(토) 10:00 예정	6. 2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5.23.(수) 14:00	7.4.(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5.28.(월) ~ 6.1.(금)	7.9.(월) ~ 7.1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사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사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5) 학력조회동의서 부(원본)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교수회관 104호)

청년 우울증 환자 80만 시대...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는가

지난 2016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대학생 신 모 씨가 서울 성북구 중암동의 고시원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군 제대 후 휴학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만화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되는 생활고와 취업난을 비관해 투신자살을 택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대학생 지 모 씨가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발견된 유서에 따르면 그는 계속

되는 취업 실패에 큰 좌절감을 느꼈으며 평소에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청년 사회에 짙게 드리운 우울증과 그 증상, 이에 대한 원인·사회적 배경 및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자.

◆나도 우울증?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 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다양한 정신·신체적 문제를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우울 장애는 △감정△생각△신체 상태△행동 등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인 만큼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일시적인 우울감과 달리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

우울증의 증상은 크게 정신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이 있다. 대다수의 우울증 환자는 삶에 대한 에너지 상실을 호소하는데, 이런 경우 학업 및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를 느끼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우울증의 신체적 증상으로는 수면장애가 있다. 아침까지 충분히 잠을 못 이루고 평소보다 일찍 깨거나 밤사이 주기적으로 계속 깨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 또한 신체적 증상 중 하나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식욕이 감소하고 식사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환자는 식욕이 증가하고 수면이 길어지는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모든 증상이 악화돼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자살 사고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약 66%는 자살을 생각하고 그중 10%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

◆청년들의 우울증

보건복지부가 이번 해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8~29세 남자의 1년 우울증 유병률(지난 1년간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3.1%였으며, 18~29세 여성은 2.9%로 남녀 모두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수준이며 연간 감기 환자 수(약 83만 명)에 버금간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유일하게 20대 남녀 모두 지난해 대비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성인 남자(18세~64세)의 유병률이 1.8%에서 1.2%로 떨어지고,

여성 또한 4.2%에서 1.9%로 하락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역학조사를 총괄한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취업 고민, 스트레스, 불안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며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고위험군"이라고 진단했다. 불안정한 사회가 청년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11.4%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체 실업자 중 43.8%가 청년(18~29세)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이 청년인 셈이다. 실업뿐만 아니라 갖은 사회적 상황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병원을 찾을 수 없다. 바로 '기록'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이 건강 심사 평가 위원회를 통해 입사 지원자들의 의료 자료(병원 진료 및 투약한 약들의 기록)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력서에 '과거 000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 정도로 병력 여부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건강 심사 평가 위원회를 통해 지원자들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대다수 청년은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진료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의 가능성 때문에 심사리 치료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15.3%로, △미국 39.2%△호주 34.9%△뉴질랜드 3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신 질환 환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우리나라는 84주로 미국 52주, 영국 30주인 점과 비교하면 최초 진료의 시점이 상당히 늦다. 이렇듯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거나 늦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초기 진료의 시점을 놓쳐 우울증의 완치가 어려워진다.

◆우울증 극복방안 및 사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구섭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최근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료를 받는다면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얘기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가볍게 던진 위로의 말이 자신들의 나약함이나 결점을 더 부각할 수 있다"며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툰 위로의 말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근원적인 우울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높은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224곳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를 배치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최대 60%였던 정신 질환 치료 본인 부담률을 20%까지 낮추고, 재발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정신과 진료 기록 보유 환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또한 마련했다. 더 나아가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동네 1차 의원도 정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정신보건사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신보건관리 시스템은 19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운영된 통합 전산 프로그램이다. 이 전산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정신 건강 사례들을 전산화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신 보건 정책 개발과 수행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여건 마련 및 정책적 지원 속에서도 여전히 청년사회에 드리워진 그늘은 어둡기만 하다. 나날이 심화하는 문제들 속에서 청년세대의 짙은 우울함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패션을
포착하다

흡선티플

봄을 맞이해 학교 곳곳에 벚꽃이 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커플들을 저주라도 하듯 비가 내린다. 우중충한 날씨에 펼쳐진 분홍색 벚꽃 속 유일하게 꽃과 어울리는 여자가 지나가고 있다. 사람들에게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얻고 싶다면 황영해(사범·영교 17)씨의 스타일을 참고해보자.

처음엔 사진 찍히는 게 부끄럽다며 친구와 함께 찍기를 원했으나, 기자의 끝없는 패션 칭찬으로 심사숙고 끝에 흡선티플 제의를 받아들였다.

기자(이하 기) : 본인데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요즘같이 날씨가 제멋대로인 날엔 옷을 고르기가 힘든 것 같다. 이렇다저렇다하는 날씨에 적합한 옷을 고르는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영해(이하 영) : 사실 날씨에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 전 날에 입고 싶은 옷이 있어 미리 정해놨다면, 다음 날 예상치 못하게 날씨가 춥다거나 비가 내리는 등의 변수가 생겨도 정한 대로 입고 나간다. 저번 겨울에도 영하 16도의 날씨였지만 입고 싶은 옷이 있었기 때문에 얇게 입고 다녔다. 한 번 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 내 신념! 내 에고(ego)다. (웃음).
기 : 혹시 블라우스 마니아? 블라우스를 좋아하는

것 같다. 청순하고 하늘하늘한 옷에 손이 많이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영 : 어렸을 때부터 바지는 잘 안 입고 치마를 주로 입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 또 친언니도 우리 학교 주변에 사는데, 언니도 나랑 비슷한 스타일을 즐겨 입어서 이런 치마랑 블라우스 양이 다른 사람들의 두 배다. 이렇게 단정한 블라우스도 많고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도 자주 입고 레이스 달린 스타일도 엄청 좋아한다.
기 : 이번 해 팬톤 컬러가 보라색으로 선정됐다.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도 보라색인데, 혹시 유행에 민감한 편인지?

골라야할지 감이 안 잡힐 땐 이번 해 유행하는 스타일을 참고해 옷을 사기도 한다.
기 : 이렇게 블라우스랑 치마를 갖춰 입으면 어디든 놀러가고 싶을 것 같다. "이럴 땐 큰 맘 먹고 꾸민다!" 하는 날이 있다면?
영 : 아무래도 오늘같이 수업이 적어서 수업을 마치고 바로 어디든 놀러갈 수 있는 날이면 꾸민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 화, 수엔 수업도 많고 과외까지 가야해서 이 때엔 선생님처럼 기본 티셔츠에 바지를 입는 등 단정하고 편하게 입는다. 그 땐 지금처럼 사랄라한 모습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다.

카메라 앞에 서기를
망설여하던 영해 씨는
지금까지 흡선티플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장 열심히
사진을 찍고선
"오늘은 강남에 놀러갈 계획이다"라며
충충 발걸음을 옮겼다.

조유진 기자 96_yujin@hufs.ac.kr

한반도를 둘러싼 대북제재와 비핵화문제 현재 위치는?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이른바 ‘대북제재’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한과 단일팀을 조성하여 올림픽에 출전하고, 대북 특사단을 맞이해 대화를 시도하며, 우리나라-미국에 대화를 요청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이어 핵무기 문제를 두고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비핵화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됐다. 과연 그간의 대북제재 정책은 어떤 방향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곧 개최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오경섭 박사 의견을 들어봤다.

오경섭 우리학교 외교안보대학원 외부 강사 겸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 연구위원

Q1. 대북제재란 무엇인가?

제재를 가하는 국가를 편의상 ‘제재 부과국’, 제재를 받는 국가를 ‘제재 대상국’이라고 한다. 대북제재는 주로 ‘경제제재’인데 하나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엔 의도적인 통상 중단, 금융 관계 중단 등이 있다. 통상 중단이란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대북제재는 수출제한과 수입제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수입 같은 경우 유엔 결의를 통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혹은 자금을 차단시키고 있다. 수출 또한 북한의 주 수출품목인 석탄,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 수출을 막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의 계좌나 금융 정보들을 다 추적해 막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대북제재라는 건 결국 제재 부과국인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 대상국인 북한을 통상과 금융 제한을 통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2. 대북제재의 구체적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06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 1718호를 채택한 이후 현재 10번째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 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11월 30일에 결의된 유엔 대북제재 2321호를 보면 우선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를 결정했고 주요 수출품인 △은△동△아연△니켈 등의 수출을 제한해 총 8억불 정도의 외화수입을 차단했다. 사치품에 대한 교역도 제한했다. 사치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지급됐지만 제재를 통해 이러한 사치품의 유입을 제한했다. 개인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특히 북한 사람의 여행용 수화물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하며 이들의 공항 경유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철도, 화물도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 제재위원회는 여기에 해상 조치도 추가했다. 북한 선박에 대해 특정 항구로의 입항 명령이나 입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8월 6일 대북제재안 2371호에선 북한 석탄 철광석 수출이 전면 중지됐다. 북한은 이 때문에 현재까지 △석탄 약 4억 불△철과 철광석 약 2.5억 불△납 광석 1억 불△해산물 약 3억 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는 중층적으로 쌓여 지속적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 그 이후 가장 최근인 지난 해 12월 23일 대북제재안 2397호에선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때 북한에 공급 가능한 정유제품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다. 또한 전 세계에 나가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 전원 송환시키는 방안 역시 채택됐다. 북한 해외 노동자는 대략 11만에서 15만 정도인데, 이들이 번 돈의 7~90% 정도가 중앙으로 보내져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쓰인다. 국제사회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전원 송환시킴으로써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했다. 대북 수출 금지 품목도 확대됐다.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목재류△선박 등이 추가됐다. 북한은 앞서 시행된 해상 조치를 피해 공해상에서 몰래 원유나 물자를 공급받거나 석탄을 제3국에 파는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북제재안 2391호에

선 해상차단 조치가 강화됐다. 2006년 1718호부터 2397호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Q3. 그간의 대북제재가 북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대북제재로 인한 타격은 외화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외화가 북으로 들어가면 모두 당으로 모인다. 이 모인 자금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된다. 주로 핵미사일 개발이나 군대 보급물자 등에 쓰인다. 통치자금의 부족은 정권 유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제 유지를 위해선 군수물자 보급이나 국가 안전보위부 같은 감시 기구 유지에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예산이 줄어들면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지고 당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결국 통치자금 부족은 곧 내부 불만을 가중시켜 안정적 권력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북한 무역은 중국에 90%를 의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재로 인해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17억 달러 적자를 냈다. 약 1조 80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이와 같은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 앞으로의 북한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북한 체제에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경제학계에서도 당장은 제재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번 해 하반기 이후엔 제재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북한 사회 전반에 경제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Q4. 대북제재에 대한 최근 북한의 대응방향은?

북한은 지난해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해엔 신년사에서 핵무기 대량생산 및 실전 배치와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미국과 반드시 타협해야 한다. 여기서 핵을 포기하고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 안정 보장과 경제발전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다. 하지만 이에 이르려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기 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대북제재의 지속적 강화다. 완전한 핵 포기 전까지 다양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북제재의 수위는 굉장히 높다. 특히 수출을 차단해 외화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높은 수위의 제재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트럼프 정부가 언급한 군사공격이다. 특히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고위 권력층은 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이를 타개하려면 핵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적절히 미국하고 타협해 제재나 군사공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동북아시아 구도에서 북한은 아예 고립된 행국이었다. △중국△미국△일본△우리나라는 서로 합의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한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려 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동북아시아 경제제재 단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지난 달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다. 여기엔 대북제재를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이 있겠

2006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 1718호를 채택한 이후
현재 10번째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대북제재라는 건 결국 제재 부과국인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 대상국인
북한을 통상과 금융 제한을 통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화가 북으로 들어가면 모두
당으로 모이고, 모인 자금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된다.

비핵화는 평화로운 장밋빛 한반도,
그야말로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를 가져올 것이다.

대응하고 있다. 핵을 폐기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통해 자금을 압박하며 유사시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북한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북한이 폐기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만이 협상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일본도 이와 같다. 주일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일본도 북한의 공격 위협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제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짧은 기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미국, 일본과의 차이점은 우리 정부에선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이에 대한 단계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정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이 미국의 체제안보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북핵 개발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즉, 남북한 모두 핵이 없어야 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쌍중단 쌍계병행’ 방법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한미 군사 활동 중단 두 가지를 같이 실행하고, 동시에 대화 테이블에 앉아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며 사실상 점진적 해결을 이야기한다.

Q6.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가 이뤄지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감소해 안보 걱정이 줄어든다. 거기에 경제지원까지 이뤄진다면 앞으로 북한은 안보전락을 바꿔야 할 것이다. 북한은 기존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적대국으로 설정해 안보정책을 구성했고 이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했지만 이 관계가 사라졌으니 안보전락을 다시 짜야 한다. 결국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은 크게 줄어들고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만일 중국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은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주력할 것이다. 즉, 비핵화는 평화로운 장밋빛 한반도, 그야말로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로 타협하더라도 한두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비핵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를 최대한 길게 끌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타협이 잘 이뤄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해주는 것과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앞으로의 정상회담과 그 이후를 지켜봐야한다.

지만 동북아시아의 전략 구도에서 북중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협상으로 북한은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북미회담 이전 북중관계 개선이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Q5. 북핵을 바라보는 다른나라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은 확실하다.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다. 타협은 비핵화 이후의 일이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경제제재와 군사적 옵션 두 가지로



기자가 되는 법

시간 참 빠르다고 느낀다. 롱패딩 없인 외출이 불가능했던 겨울에서 어느새 벚꽃이 만개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었다. 지난 12월 수습 기자로 뽑힌 이후 방중 교육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의 발행을 마쳤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발행은 그야말로 적응의 연속이었다. 방중 교육을 마친 뒤 '기사를 미리 미리 써서 여유롭게 마감하자' 라고 다짐했던 나였지만, 첫 발행부터 마감 전 날인 수요일 밤에 부랴부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취재처에 연락해 기사거리를 찾는 일도 낯을 많이 가리는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더군다나 학생 개인으로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보 기자로서 연락한다는 점은 큰 부담감을 안겨줬다. 취재하는 기자의 태도 하나하나가 학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됐다. 마감 당일도 수습신문을 마감할 때와 달리 시간이 오래 걸렸다. 우선 기사를 미리 다 써가 피드백을 바로 받으려고 했던 나의 계획과 달리 기사를 다 완성해 가지 못했다. 못써간 기사를 계속 쓰며 동시에 다른 기사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 계속 수정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혼란이었다. 더구나 새 학기에 적응하느라 잠을 많이 자지 못한 상태여서 새벽 1시 이후로는 너무 피곤해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기분이었다. 첫 마감 날 새벽 6시에 집에 가며 든 생각은 '피곤하다' 였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날은 집에 가 바로 잤던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었다. 고작 2주 뒤였던 두 번째 마감 날에는 집에 가며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바로 자지 않고 '기사를 잘 마무리하고 온 건가' 계속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 잠자리에 들었다. 조판소에 가는 것도 흥미로웠다. 직접 가보기 전까진 조판소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 거리감을 느꼈는데, 고작 두 번 갔다고 조판소가 기사를 확인하고 레이아웃 보는 것이 즐거웠다. 최근에는 나의 오랜 소망이었던 기자로서 뿌듯함 느끼기를 달성했다. 외대학보에 지원할 때부터 나의 모토는 '학교 신문인 만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쓰자' 였다. 이에 나는 발행호에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취업 문제를 다루며 우리학교의 진로취업센터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나의 이러한 진심이 독자들에게도 닿았는지, 발행 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기사의 유용함에 대해 칭찬받았다. 기자가 된 이후 처음 받는 칭찬임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더 나아가 항상 독자들을 위해 유익한 기사를 많이 작성해야겠다는 다짐 또한 들었다. 아직 부족한 점 또한 많이 있다고 항상 느낀다. 어서 빨리 성장해 미미한 기사를 작성하고 글 쓰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날이 오길 바란다.



김초영 기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경기도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택배 갑질' 이 논란을 겪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아파트 단지에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택배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는 공문이 붙으며 시작됐다. 관리 사무소 측은 "단지 내 안전과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택배 차량 통제의 이유를 밝혔다. 더 나아가 공문에는 혹시라도 택배기사들이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해 택배를 집 앞까지 가져다주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까지 상세히 적어놓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하루에 배달하는 물건의 개수가 수입으로 직결되는 택배기사들에게 이러한 결정은 상당히 가혹한 조치다. 아파트의 요청대로 배송하려면 주차장에서 각 동까지 일일이 카트로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 이렇게 배송한다면 배송 시간이 5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레 배달 수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관리 사무소 측이 말한 '품격과 가치' 는 무엇일까. 그들은 이러한 차량 통제가 아파트의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가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번 갑질 논란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대중들에게 큰 못매를 맞으며 스스로 아파트의 격과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갑질' 문화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지난 2014년에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화항시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 중 대행사 직원의 얼굴에 물을 부은 뒤 회의장에서 내쫓아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갑질 논란이 일자 이들은 직후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이후 피해자를 조직 내에서 왕따 시키는 모습을 보이며 과연 반성하는 태도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들게 했다. 이렇듯 갑질 논란은 항상 단발성 사고로 마무리되며 갑 입장의 사람들로부터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 갑질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다. 만약 사회 분위기를 의식했다면 그들은 진작 태도의 변화를 보였을 것이다. 결국 갑질 문화는 갑 입장의 사람들 스스로가 이러한 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바뀌기 위해 노력해야 개선될 수 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는가. 현대사회에서 오블리주는 노블레스에게만 요구되지 않는다. 사회 속 크고 작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블리주' 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는 날이 오길 바란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철학의 의미

사전적 의미로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연구하는 것이다. 공자나 맹자, 데카르트나 칸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탐구해 놓은 이론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글과 말로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 이론들은 너무 어렵고 지루하다. 너무 시적이고 난해하며 쉬운 말도 어렵게 바뀌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흔히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복잡한 생각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교 철학과에서 배우는 어려운 학문.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은 우리보다 몇 십 년 혹은 몇 세기를 앞서 산 사람들이고, 이들이 연구한 업적은 시대를 뛰어넘어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 많이 생각했고, 깊이 생각했다. 천재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들이 탐구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을 보는 입장을 넓힐 수도, 재구성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없다. 오히려 모르는 게 행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엔 철학의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하려 한다. 사실 철학의 사전

적 의미는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르는 말' 이다. 즉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다. 이제까지의 삶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냥 죽지 못해 살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과 또 다른 것들, 혹은 나의 세계관을 깨부술 그런 것들, 매일 같은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씩 다르다. 조금씩 다른 삶에서 자신만의 철학 성립하라. 세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하이데거, 니체, 노자 같은 사람들의 사상을 공부하면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스스로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앞서 말한 철학의 두 번째 의미에 더욱 가치를 뒤라. 세상을 헤쳐 가는데 선인들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신의 생각이 더욱 중요하다. 철학자가 돼라. 당신이 살아온 삶에서 비로써 생각을 정리해라. 유명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HUFS, I'm always #WithYou

박성민(서양어 · 이탈리아어과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때가 되면 움츠렸던 꽃잎을 터뜨리는 이 꽃잎들처럼 변함 없이 우리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캠퍼스를 꿈꾸는 우리들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학교 내부적으로도 조용하지만은 않았던 지난 한 달이었다. 이번 외대학보에선 학내 미투운동은 물론, 학교 구조조정이나 성적 평가방식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뤘다. 대학가의 부는 변화의 바람, 미투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글의 취지는 물론 글의 구성 또한 상당히 수준 높았다. 타임라인 형식은 아니었지만, 기사가 올해 우리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관련 사건을 하나의 글로써 정리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에 대한 평가와 일맥이 없는 여론만이 남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과 사건 위주로 기사를 구성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와 함께 미투운동은 학내만의 문제라기 보단, 사회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펜스'라는 개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균형 있게 풀어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성폭력 사건은 취재 과정에서부터 취재원 확보가 어렵고, 일말의 단어 선택이 다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외대학보의 연속적인 성폭력 관련 보도는 학보의 역할인 기본적

인 정보제공에 충실하며, 학내의 여론들을 균형 있게 다뤄다는 점에서 교내 언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 성적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017호는, '두 가지 갈림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성적 평가제도라는 주제를 다뤘다. 하나 균형 잡힌 이야기를 다룰 것만 같던 기사 제목과는 달리, '상대평가' 에 대한 지나친 단점만을 부각한 기사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학교 내 많은 학생들이 상대평가나 외국어 특기생들과의 학점 경쟁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그로 인해 제도적으로 얻어지는 장점들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들어줬으면 더 좋을 것이다. 상대평가의 장점으로 '학점인플레이션 현상' 을 소개한 것은 적절했지만, 상대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기사에선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 어떤 문제든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제나 학생 곁에서 있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기대한다.

깊어지는 생각 그리고 고민

조강휘(통번역 · 아랍어 15)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17호에서는 지난 1016호에 이어 미투운동 관련 기획을 다루면서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이밖에도 △학과 구조 조정 △펜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문제 등 생각해볼 여려 사안들로 구성됐다. 우선 7면에서 다루는 '미투운동 그리고 변화의 바람' 에서는 △정치계 △연예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미투운동과 전국 대학가에 일고 있는 이 운동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주목을 받은 여러 유명인들에 대해 전국민은 충격을 받고, 최근 우리학교에서도 수차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해당 학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타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4면에서는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뤘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학교의 경우 2012년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통합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논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5년이 지난 지금도 캠퍼스 간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화두 되는 것이 중북학과 논란의 문제였다. 이런 문제의 배경과 전국 여러 대학들의 학과 통 · 폐합 등 구조조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과연 이것이 대학을 보는 데 있어서 실리와 학문, 이 두 가지를 어떤 지점에 서 비워놔야 되는 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기사를 다뤘다. 또한 5

면에서는 대학 성적 평가방식인 일정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절대평가와 수강생에 비율에 맞춰 학점을 나누는 상대평가에 대해 다뤘다. 우리학교에서는 2014년 12월, 2학기 기말달 즈음에 갑작스럽게 평가방식을 바꾸면서 많은 학생들을 경악에 빠지게 했다. 캠퍼스 통합에서 보여준 학교 행정소통의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라 그분노는 더 컸었다. 이면에서 두 평가방식의 비교와 변화된 방식이 낳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설명해줬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16호의 연장선이 되는 기사가 많았다. 더 자세히 설명해줘서 좋았지만 약간의 치우침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각종 사건과 상황들에 대해 독자들이 읽기 쉽게 기획을 잘하고 설명도 잘해줬다. 또한 전반적인 기사 흐름에 뒤이어 열린공간 면에서 다루는 칼럼과 사설이 그것들을 잘 감싸줬다. 기사를 보면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던 참나 10면에서 다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설명하며 소통의 방식을 얘기한 철학칼럼과 11면에서 다뤄오는 서울캠퍼스 총학생선거에 대해 소통의 기회라는 사설을 보면서 만족스러웠다. 최근까지 미세먼지도 심했고 좋지 않은 사건들로 우리들의 시간은 짜투리였지만 이제 날이 풀리고 벚꽃이 만개하면서 학우들에게 따스로운 봄의 기운이 오듯이 다 음 외대학보에서도 좋은 내용의 기사를 기대한다.



국 · 부장 고정칼럼



중동의 화약고, 또 터진 걸까?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은 영국 · 프랑스 등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연구센터 등이 위치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바르자 지역을 포함한 3곳에 105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었다. 이곳들은 지난 7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동구타 두마에서 발생한 화학무기와 연관된 곳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화학무기는 유독성 화학 작용제 또는 그것을 충전한 무기로 대량살상의 염려가 높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통제한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민간인 최소 70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시리아의 책임을 묻고자 시리아를 공습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 강력 발발했지만, 보복 공습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현재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과 IS의 시리아 침투의 연장선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사건들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시아파 아사드 정권과 수니파 반정부군의 대립 전이었으나 러시아와 미국이 각 진영을 지지하며 국제전으로 확대됐다. 러시아는 친러 정권인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 정권이 무너지고 중동 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길 바랐던 것이다. 이후 IS의 시리아 내 영향력 확대로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프랑스가 함께 IS에 대한 공격 및 공습 작전을 수행했다. IS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아사드 정부와 반정부군의 대립은 다시 심화됐다.

중동이 화약고로 불리게 된 이유는 많은 층위가 겹쳐있다. 종파 갈등, 패권경쟁, 시스템적 차이 등.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할 수 있게 물자를 지원하는 강대국들의 중동 내 패권 싸움 때문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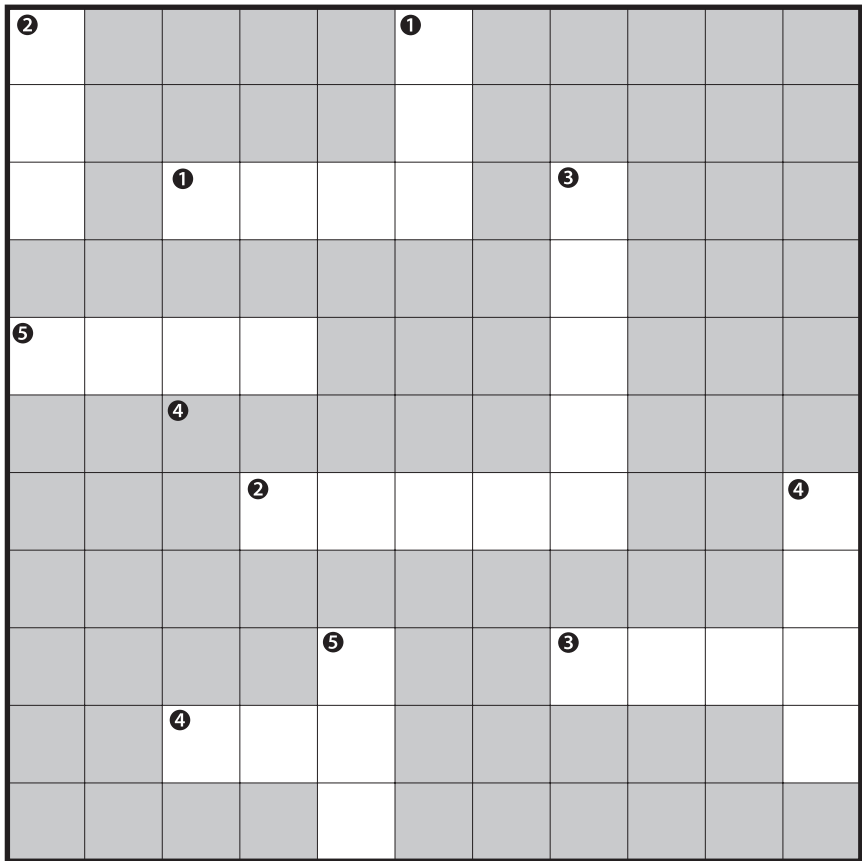
박지민 기자 94piimin0303@hufs.ac.kr

만평



기사제보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십자말풀이



- 가로**
1. 글로벌캠퍼스에서 ○○○가 진행됐다.(1면 참조)
 2. 프랑스 극작가 ○○○○○가 진행됐다. (2면 참조)
 3. 서울캠퍼스 ○○○○, 김덕술 동문의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2면 참조)
 4.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 (6면 참조)
 5. 지난 11일과 12일 에 진행된 ○○○○ 재선거. (4면 참조)

- 세로**
1.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가 진행됐다.(3면 참조)
 2. 청년 사회에 드리워진 그늘, ○○○.(8면 참조)
 3. ○○○○○는 “도를 아십니까?” 등의 멘트로 접근한다. (7면 참조)
 4. 벤디스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 ‘○○○○’ 이 새롭게 선보였다.(12면 참조)
 5. 개교 64주년을 맞아 ○○○이 발간됐다.(3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아고라: 공적인 의사소통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인 폴리스에 형성된 광장. 바로 아고라를 뜻하는 말이다. 이곳은 시민 생활의 중심지로 여론 형성 및 학문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재판이 열리고 연극 무대가 설치되는 등 정치 · 문화의 장이 되기도 했다. 아고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시민’ 과 ‘소통’ 이다. 이곳에선 전반적인 국가 · 도시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논의한다. 이 모든 것은 집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전제로 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의 표상이다. 개인의 시민들이 모여 이뤄지는 소통은 그 영향력부터 남다르다. 다양한 이익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간다. 혹 사회가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그 책임은 지도자 및 관리계층에게만 있지 않다.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학기, 학교 내 논의 안전 및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기총회가 열렸다.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아고라’ 의 자리였다. 그 어떤 것보다 구성원들의 소통과 지지가 필요한 자리에서 2학기 정기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다. 우리들의 아고라엔 시민도, 소통도 없었다. 학생들의 무관심은 곧 책임에 대한 문제로 불거졌다. 일각에선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 선거가 무산되고 학생사회는 비대위 체제 아래 운영됐다. 비대위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학교 문제 개선에 힘썼지만 그럴수록 한계 또한 명백히 드러났다. 대표성 부족의 문제는 일처리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다. 학교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시키기에 비대위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책임은 구성원 전체에게 있었다.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무산됐던 총학 선거에 학생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우리의 손으로 실현하지 못한 권리는 곧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의 참여 부재는 많은 문제들을 방치했다. 2014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한 정기총회는 그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지난 14일, 제 52대 총학으로 ‘푸름’ 이 당선됐다. 최종적으로 41.14%의 투표를 기록하며 찬성 89.39%, 반대 4.84%, 무효 5.76%로 선거를 마무리 지었다. 학생사회를 대표할 총학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선거였다. 드디어 대표성을 확보한 학생기구가 자리를 잡았고 더 나은 학생사회로 나아가길 초석이 다져졌으니 다음은 아고라의 형성, 즉 성공적인 정기총회 개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이다. 참여와 소통, 이것이 우리가 다시 직면한 과제다.

박주원 기자 94swj04142@hufs.ac.kr

벌써 2018년, 이제 4년

그날 이후 4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다. 정부는 1072일이 지날 때까지 ‘인양’ 이라는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지만 박근혜가 파면되고 12일이 지난 지난해 3월 22일 드디어 인양을 시작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해양안전에 관한 새로운 장치가 마련됐고 의혹들이 점점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그날 7시간의 행적의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세월호는 여전히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념과 진영에 따라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정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304명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고 이 중 5명을 ‘미수습자’ 라는 이름으로 깊은 바다 밑에 남긴 이 사건에 대한 추모식을 △이념과 진영에 따라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4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

4월16일은 ‘국민안전의 날’ 이다. 이날이 ‘국민안전의 날’ 인 것은 국민들이 그날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분노해야한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와 같은 말을 기억하고 분노해야한다.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채영길
편집장 박주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탄생한 벤디스, 도전을 말하다

인공지능이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최근 예비 창업가와 대학생들 사이 'IT산업'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조정호(법·법 05)씨는 우리학교 법학과 졸업 후 우리나라 최초로 모바일 식권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으로 조 대표의 벤디스는 기업 식대 및 복지 문화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지난해 전체 거래액 240억 원을 기록했다. 평범한 사법고시 준비생에서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까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정호(법·법 05) 씨를 만나 창업까지의 과정, 추후 계획까지 들어봤다.

Q1. 현재 사업아이템인 벤디스의 식권대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식권대장은 회사원들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스마트폰에 깔린 식권대장 앱을 이용해 식대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식권대장을 통해 기업 및 제휴식당에서 직접 종이식권을 발급하고 회수해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는 등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식대지급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종이식권△장부△법인카드로 복잡하게 정산하던 과정을 바꾼 거죠. 또 식당은 손님들이 식권대장으로 결제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식권대장으로 계산된 실시간 매출현황, 사용 통계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해 훨씬 편리하죠. 기업은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제휴 식당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만족도가 높아요. △한국타이어△현대오일뱅크△한화시스템△한솔제지 등 대기업을 포함한 전국 170개 기업에서 4면5천 명 정도 이 식권대장을 사용해요. 이번 해 3월 기준으로 한 달에 총 33억 정도의 식대가 식권대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요.

Q2. 오래 준비한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과감히 사업에 도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고시공부의 경우, 1년만 더하면 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헤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저도 시험을 오래 준비했는데 시험에 세 번을 떨어지니까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공부를 더하면 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시험을 관두면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관두지 못한 게 더 컸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고시원에서 생전 보지도 않던 경제 뉴스를 봤어요. 직장인들이 서울로 출근할 때 광역버스가 증설이 안 돼 만원 버스가 위험하게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고발성 뉴스였어요. 그 때 갑자기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원 봉고차가 학원에서 집까지 데려다줬던 것이 생각났어요. 만약 내가 전세버스를 대여해서 인터넷을 통해 버스이용객을 모집하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흔히 말하는 ‘사설버스’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버스가 있으면 탈래요?”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당장 이걸 해야겠다고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앞두고 있던 때에 고시원을 미친 듯이 뛰쳐나왔어요. 당시 제가 4년 간 공부했던 모든 책을 중고서점에 다 팔아버릴 정도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부모님은 거의 뒤집어지셨죠. 하지만 사전에 제가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해도 부모님의 반대를 피할 수 없으리라 확신이 들었어요.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뛰어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제 나름대로 배수진을 쳤죠. 이런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니 하게도 제가 하려던 사설버스 개설 사업이 당시 운수사업법으로 인해 금지됐었어요. 고시 공부를 한 법대생이 법률적 허가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뛰쳐나왔고, 사업은 안됐고,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것 뭐든 해보자 싶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3. 다양한 사업 아이템 중 모바일 식권 시장을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버스사업을 시도도 못해본 후 실패하면서 같이 공부하던 형을 창업멤버로 들였고 항상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함께 아이

디어 회의를 했어요. 당시 부모님께 받던 용돈도 끊겼고 학생이기도 해서 포인트 하나하나가 소중한 늘 그 카페에 가 적립을 받곤 했어요. 그러다 문득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계열사끼리 하나의 포인트를 공유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아닌 상권들을 하나의 마일리지로 묶어주면 그들도 대기업에 준하는 마케팅 파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마일리지 서비스’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선정했죠. 마침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돼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이템을 구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소문 끝에 컴퓨터공학과 전공생을 찾아 개발자로 영입했죠.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적은 학생이다 보니 어떻게 적립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의 잠재고객이 이 서비스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 하지 않은 것이 복병으로 작용했어요. 저의 예상과는 달리 가게 사장님들의 반응이 안 좋았죠.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냐고 여쭙보니 “요즘 대학생들은 모바일 쿠폰 같은 것을 주고받는데 그런 기프트폰을 영세한 소상공인들도 팔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이 두 번째 아이템이 됐어요. 우연히 찾아온 투자사에 1억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다 한 모바일 게임사에서 저희한테 시스템을 개발해달라는 외주 개발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종이로 된 복지 상품권이 있는데 그 상품권을 통해 커피도 사먹을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상품권이라 매번 총무팀이 일일이 나눠주고 회수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 일을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죠. 의뢰를 받은 순간 그 시스템이 과연 이 회사에만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시작했죠. 생각을 바꿔보니 회사마다 ‘식권’이라고 하는 고유의 상품권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식권대장이 라는 아이템이 탄생하게 됐어요.

Q4. 원래 재학 중 창업에 관심이 있었나요?

재학 중에는 고시공부밖에 몰랐던 학생이라 사법고시 준비에만 전념했어요. 창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보니 창업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어요. 앞서 말한 버스 운수사업은 학부생일 때 생각한 것인데, 오히려 창업을 하고 나서 허브(HUB)라는 우리학교 창업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창업 후에 들어간 거라 창업 도전에 동기가 부여되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돌아켜 생각해보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축제 때 단대버스에 손님을 끌어온다든지, 동아리 부원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사업에서의 영업 활동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대표는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존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어서 영업 능력이 더 요구되기도 하고요. 따져보면 작은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 후에 고객 유치 같은 영업활동에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Q5. 우리학교에도 창업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학교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나요?

최근 다양한 종류의 창업이 등장했지만 특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거나 전문

적으로 배우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후배들이 종종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저는 창업에 있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수라는 생각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는 주위 친구들을 보면 소평물을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창업을 한다고 해서 꼭 IT개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업 동아리 후배를 가끔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학교 앞에서 봉어빵이라도 팔아보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창업이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구현해 만들어낸다고 해서 반드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방식을 조금만 변형해도 충분히 더 큰 가치를 만들기도 해요. 봉어빵을 팔 때 “우리는 기성세대에서 팔던 방식과 다르게 팔아볼까?”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학생 때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조금 더 간단히 생각해보면 학교 축제 때 팔기를 팔아보는 것처럼 얼마든지 창업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만원이라도 직접 내가 벌면 창업을 하는데 기다란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Q6. 창업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실 창업에 실패할 때마다 그만두고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주위의 시선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창업을 할 때인 2012년도만 해도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거든요. 창업 과정에서 “미래가 없다”라는 이유로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하고 있는데 나와서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큰 좌절감을 느꼈어요. 좋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면 사람 인지도 은연중에 위축도 됐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타인 혹은 사회적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시선에 초연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확신이 없으면 창업에서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Q7. 창업 과정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인정이에요. 식권대장으로 본엔젤스와 배달의 민족에서 7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전할 때만 해도 아버지는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회사 통장 잔고에 투자금이 입금되자마자 사진을 찍어 보여드렸더니 그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네가 서울에 가서 너만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세상을 내가 못 받아들이던 것 같다”며 “이제는 널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응원군이십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식권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모바일 식권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작게나마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냈고 모바일 식권을 통해 작은 부분이지만 사회적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큰 희열을 느껴요.

가장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일은 평창동계올림픽 식대 지원이에요. 지금까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이식권을 지급받았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 최초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라는 슬로건 하에 개막했고 그러던 중 올림픽 모바일 사업 입

찰 공고가 올라왔어요. 지원 결과, 다양한 기업 중 가장 적합한 기업에 저희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들은 식권대장에서 식권을 다운받아 주변 식당이나 숙소에서 비치된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었어요. 이로써 사전에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책정한 식대 예산에서 5억 원가량 절감하는 성과도 났죠. 세계 최초로 모바일 식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뿌듯했습니다.

Q8. 다양한 경험 끝에 성공한 창업가로서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창업을 할 때 실패할 거란 생각을 잘못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창업을 한 친구 중 첫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학생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것으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하는 것과 “실패할 리가 없다”로 시작하는 것은 실제 실패했을 때 받는 타격이 달라요. 실제로 모바일 식권이라는 사업도 저의 창업 역사에서 보면 4번째 사업 아이템이에요. 세 개의 사업 아이템을 거쳐 식권이라는 사업 아이템에 온 것처럼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무의미하지도 않죠. 그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고민해야 돼요. 어떤 것을 개선해야 성장할 수 있을지를 파고드는 집념이 중요해요. 보통 실패를 하면 막막한 마음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시험 준비를 하느라 스펙도 없었고 나이드도 많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창업을 한 후 사회에 나와 보니 아직도 저는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후배들이 더 자신감 있게 도전해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Q9. 벤디스의 더욱 큰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해요.

스타트업 기업은 ‘고위험 고수익’이 본질적으로 내재돼있고 기존 시장과 다른 혁신적 성장이 특징이에요. 신속히 서비스의 규모를 확장하고 특정 지점에 도달해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식권대장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장을 위해 외부 투자나 대규모 자금을 얼마나 단시간에 이끌어내는 지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바일 식권 시스템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과감한 영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같아요. 시장 규모를 추산해보니 약 10조 정도가 나왔는데 지난해 형성된 시장 규모가 천억이 조금 안 돼요. 올해 목표 거래액은 500억 정도로 잡았어요. 아직 성장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결승마 단계이니 갈 길이 멀어요. 항상 팀원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바일 식권은 우리가 만들어냈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장이니 누군가에게 지지말자”라고 해요. 모바일 식권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이니 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